

대학과 일선 교육 현장과의 연계 방안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중심으로 -

정 수 철*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공통사회과목 지식 연계의 필요성
- III. 인터넷교육프로그램 연계의 필요성
- IV. 홈페이지를 통한 연계 필요성

I. 들어가며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순수과학에 대해서밖에 배운 것이 없고 예비교사로서의 제대로 된 고민이나 현장에 대한 준비가 없이” 교사가 되었다고 회상한다. 교사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는 그 정체성을 현장 적용력이 있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과학과 똑같이 교과 내용을 배우더라도 이를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 가공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은 준비시켜 주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강조하였다. 현장 교사들은 현재 대부분의 사범대학의 교수진에 교과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과교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다. 그 결과 이론 중심의 교원양성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양성교육기관인 사범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중등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는 괴리되어있다

정보화로 인한 사회의 빠른 변화는 이론중심인 지식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방법론적 지식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식을 더욱더 요구한다고 하겠다.

2005년 2월 21일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한 대학교 일선교육현장과의 연계 교육세미나에서 발표자인 장은주는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예비교사들 역시도 수업에서 최대한 많은 발표기회를 부여받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교육론에서 교육과정해설서, 교과서, 교사용지도의 탐독과 검토를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과정 체계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임용

* 한림중학교 교사

시험의 준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교과교육론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실천적 현장 교사와 이론중심인 교수진의 연계와 협력은 필요한 것이 다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연계의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중등교사의 개인적 인 관점에서 학교현장과 대학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하다.

II. 공통사회과목 지식 연계의 필요성

사범대학의 학부과정에서 급하게 공통사회전공을 신설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공통사회 커리큘럼은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의 개설과목을 지정해서 이를 반드시 이수하고, 나머지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에서 균등하게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사회의 지리,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기존의 지리, 일반사회과(전공)의 과목들과 어떻게 차별화 내지는 특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사실상 같은 과목을 이름만 약간 바꾸거나(예를 들면 역사교육전공의 '한국사개론'을 공통사회전공에서는 '한국사개설'로 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극히 일부의 과목만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지리, 일반사회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아예 지리, 일반사회 전공에서 수강한 과목들을 '선수과목'과 같은 명분으로 공통사회 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이중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표>고등학교공통사회교육내용과 제주대학교사범대학사회교육과 교육과정 비교

| 고등학교공통사회 | 대학교과과정 | 비 고 |
|----------------|--|-----------------------------|
| 국토와지리정보 | 지도학및실습,지리정보론및실습 한국지리교육 사회일반지리학개론 | |
| 자연환경과인간생활 | 지형학 사회일반지리학개론 | 기후와인간생활설명빈약 |
|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 사회일반지리학개론 | 도시체계설명에는 빈약 |
|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 | 접근하지 못함 |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 문화지리학 세계지리교육 | 상업의발달과생활권의확대 세계화지역화접근 못함 |
|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 현대정치학 한국사론 | |
| 정치생활과국가 | 사회와정치 헌법개론 사회와법률 한국문화사 | 사회적쟁점의정치적해결과정접 근못함 |
| 국민경제와합리적선택 | 한국경제특강 | 국제경제접근못함 |
| 공동체생활사회발전 | 사회학 | |
| 사회변동과미래사회 | 사회조사방법 | |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부각된다. 통합교과에 접근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의 미비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천적 지식에 대한 접근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범대학에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점에서는, 중등교사를 겸임교사(시간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통합교과의 미비한 분야를 보충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실천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사범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생들 역시 대화를 해보면 중등교사의 시간강사(겸임교사)의 활용은 7차교육과정에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임용시험에 준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장교사를 시간강사(겸임교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수당은 학교특기적성에서 받는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과, 학교장이 대학에 수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데 대학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연계방안의 첫째 요소로 제기하고자 한다.

III. 인터넷교육프로그램 연계의 필요성

현재 사범대학과 학교현장과의 시설은 너무도 차이가 있다.

이미 학교에는 빔프로젝트, 디지털화된 모니터, 전자칠판과 같은 수업기자재를 이용하여 수업활용에 접근하고 있어 컴퓨터기자재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 내 상황은 다르다. 현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실에 설치된 기자재나 사범대학컴퓨터실에 갖추어진 기자재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교육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현장 능력을 길러낼 수가 없다고 사료된다. 더구나 대학의 현 상황은 정보능력을 일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치중하는 면이 있어 하드웨어의 문제점보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하겠다. 사범대학컴퓨터실을 보더라도 현재 컴퓨터 수업은 동영상화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예비교사와 교수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론적 지식과 실천적지식이 습득된다. 개발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교육적 가치창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공주대학교사범대학이나 한국교원대학교대학를 비롯한 몇몇 사범대학에 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일은 어느 개인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업체, 교사 등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수록 이 효과는 더 크고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가 직접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서를 받아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대학교수진에만 맡겨 둔다면 현실감이 결여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교사의 참여는 중요한 것이다. 그룹을 구성하여 대학은 계획과정 비용을 담당하고, 학교교사는 현장에 맞는 교과교육의 실천적 지식을 담당하고 예비교사와 교사는 제작과정을 담당한다면 좋은 인터넷교육프로그램이 제작되리라 사료된다. 이것을 두 번째 연계방안으로 제시한다.

IV. 홈페이지를 통한 연계 필요성

사범대학에서는 교과교육 연구와 실천 모든 단계에서 교육 이론의 수요자인 단위학교와 현장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료란 시사자료, 임용고사자료, 수준별학습자료, 수행평가와 형성평가자료, 지형답사자료, 현장체험학습자료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실행연구 역량을 갖춘 현장 교사들과 함께 교원양성 전문가나 교과교육 연구자 등이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홈페이지 자료는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학교와 일상생활, 연구이론과 실천사이의 분리를 치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홈페이지 자료의 특징은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교직을 기능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라고 한다.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의 지시사항을 단순히 따라하는 기능인이나 '교육수행자'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는 단순히 교사용지도서나 다른 권위 있는 참고서에 제시된 처방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지식전달에 전념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교수방법과 교육관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업인이 되어야한다. 교사는 교육학적 연구결과를 단순히 수용하여 행동에 옮기는 기능인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활용하게 될 전문 지식의 생산자가 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서 교사는 그들의 교실에서 실천하게 될 교수·학습 이론과 교재의 생산자가 되어야한다. 생산된 자료는 공유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창조된다고 볼 때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의 공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등에서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제주대학교사범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생에게 물어보면 사회교육과 홈페이지가 없어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고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쉽게 찾아볼 수 없

고 동문과 교사와 연대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것을 공유시켜야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고 임용고사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은 사회교육과 교수진이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학생들에게 맡겨 두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수진과 교사, 사회교육과 학생과의 자료가 공유되며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 홈페이지는 선전적도구나 홍보의 요소가 아니라, 교수진과 교사와 학생 자료 공유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홈페이지가 잘 정비되고 교수진이 앞장서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교사가 제공하는 학교현장의 교과교육 자료와, 예비교사들이 필요한 임용고사 준비 자료 등의 공유되므로 인하여 학교현장이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것을 세 번째 연계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박영옥(2003).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과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내실화(개원5주년 기념 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자료.
- 제주대학교교육과학연구소(2005). 「대학과 일선교육 현장과의 연계 세미나」